

공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2017. 3.14(화) ~ 3.20(월)

한국영화사연구소 조준형

I. 출장개요

□ 출장 목적

- 북미아시아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연례 콘퍼런스 참석을 통한 북미 지역의 한국학/영화학 동향 파악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 한국학 사서 워크숍 참석
- 박물관 전시 기법 및 동향 조사

□ 출장 개요

- 기 간: 2017. 3.14(화) ~ 3.20(월)
- 출장지: 캐나다 토론토
- 출장자: 조준형(한국영화사연구소)

□ 세부 일정

월일(요일)	방문장소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3.14(화)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	-인cheon 출발(10:20) ~ 토론토 도착(10:20) ○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 방문	
3.15(수)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 로얄온타리오 박물관 방문 ○ 한국학 사서 석식 모임 참석	○ 구미리(듀크대학교 사서) 등
3.16(목)	세라톤센터토론토 호텔(북미아시아학회:AAS)	○ 한국학 사서 공식 모임 참석 및 면담(11:30~) ○ 컨퍼런스 등록 및 참관	○ 강미경(하버드 대학 한국학 사서) 등
3.17(금)	세라톤센터토론토 호텔	○ 컨퍼런스 참관 ○ AAS 마켓 동향 조사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학자의 밤 파티 참석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담당자 등
3.18(토)	세라톤센터토론토 호텔	○ 컨퍼런스 참관 ○ 한국학 연구자 석식 (18:00~22:00)	○ 김규현(UC 데이비스), 이향진(릿쿄대학) 이상준(싱가폴 난양공대) 등
3.19(일)		- 토론토 출발(12:30)	
3.20(월)		- 인천 도착(1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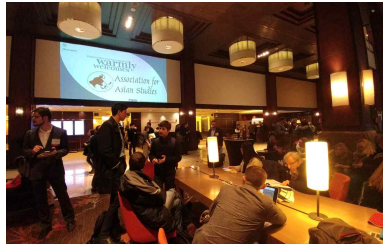
II. 주요 내용

□ 북미아시아학회(AAS) 연례 콘퍼런스 참석

- 북미아시아학회(이하 AAS)는 전 세계 아시아학 진흥을 위해 1941년에 설립되어 현재 8,000여명의 회원 수를 기록하고 있는 학회로, 매년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 연구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 2017년 AAS 콘퍼런스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워싱턴 스테이트 컨벤션센터에서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나흘간 개최되었음.
- 콘퍼런스는 총 300-400개의 주제로 구성, 각 주제 당 4~5명이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됨. 콘퍼런스의 주제 구성은 연구자 집단이 주제를 기획하여 AAS에 신청하는 방식과 개인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후 학회 측에서 주제별로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나뉨.
- 이번 연례 콘퍼런스는 영화학을 비롯하여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아시아 지역 연구 전반을 다룸으로써 한국학 및 영화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전체 주제 중 '한국' 혹은 '영화'에 관한 주제를 선별하여 출장기간 동안 4개 주제를 참관하였음.
- 한국영화 및 역사 등과 관련한 연구 주제는 일제시기, 60-70년대, 80년대 이후 등 다양한 시기를 다루고 있었음. 참관 주제별 참석자 수는 10~20인 정도였음.
- 2018년도 AAS 연례 콘퍼런스는 2018년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임.
- 콘퍼런스 기간 중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한 한국학 학자의 밤 파티 참석



컨퍼런스가 개최된 The Sheraton Center 외경



컨퍼런스가 개최된 The Sheraton Center의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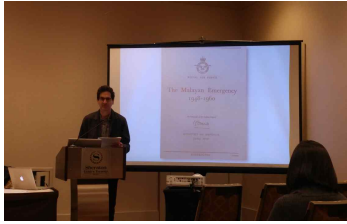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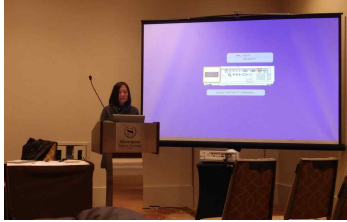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한국학 학자의 밤 파티장 입구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한 한국학 학자의 밤 파티장 내부

※ 2017년 AAS 연례 콘퍼런스 참관 주제 및 내용 요약

1. 국제 미디어 가버넌스와 냉전 생기기 아시아 만들기
 - 발표: :Chen, Hongwei Thorn(Uni. of Minnesota), Bloom, Peter J.(Uni. of California, Santa Barbara), Gharabaghi, Hadi(New York University), Park-Primiano, Sueyoung(Ithaca College)
 - 내용 요약: 이 패널은 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 생기기 아시아 각 국가들에서, 미국(과 영국, UNESCO 등 서방의 권력)이 어떻게 미디어, 영화, 시청각물 등을 활용하여 냉전구도를 만들고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토록 하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발표함. Chen, Hongwei Thorn은 1949년을 전후하여 유네스코가 중국 난징에서 추진한 “건강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이 기간 어떻게 시청각물과 영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갖춘 중국을 만들고자 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 두 번째로 피터 블룸은 2차세계대전 이후 말레이지역(현재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을 대상으로 영국이 시행한 말라얀 이머전시(Malayan Emergency)라 이름 붙여진 영국의 반공선전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음. 발표자는 특히 이 프로그램 중 라디오 프로젝트에 집중했는데, 라디오가 비교적 값싸고 확산성이 높은 매체였기 때문임. 발표자는 당시 영국이 라디오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오지의 정글의 소리, 미국의 팝음악 등을 결합한 라디오 프로젝트를 운영했고, 이것이 이후 사운드 아카이브로 발전했음을 발표함. 세 번째 발표자인 뉴욕대학교의 Gharabaghi, Hadi 교수는 1951년 USIA(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교육 프로

그럼, 그 중에서도 교육영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마지막으로 Ithaca 대학의 박수영은 1950년대 미국의 정책 목표와 냉전을 수행하기 위해 USIA가 한국에서 진행한 영화 프로젝트를 분석하였음.

	
발표자인 Chen, Hongwei Thorn	발표자인 Bloom, Peter J. 교수
	
발표자인 Bloom, Peter J.	발표자인 박수영 박사

2. 코스모폴리탄의 형상: 한국 시각문화에서의 세계

- 발표: Kliein, Christina(Boston College), 박현선(연세대학교), 이운중(동아대학교), 이설(Stony Brook Uni.)
- 내용요약: 코스모폴리타니즘을 하나의 세계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다원적인 세계의 실현 과정으로 보고 이를 한국영화사의 이미지에 적용한 패널. 보스턴 대학의 크리스티나 클라인 교수는 1959년, 한형모 감독의 작품 <사랑하는 까닭에>의 제작과 수출, 영화제 출품 배경, 영화 이미지가 소구하는 바 등을 분석하여 당시 한국영화계가 한국을 어떤 방식으로 해외에 보이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 네트워크가 이 영화를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제시함. 박현선은 하길종 감독의 1973년 작 <수절>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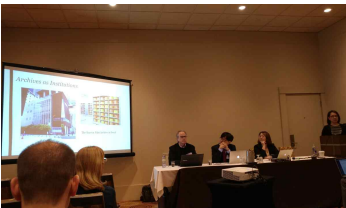
심으로, 하길종의 영화에 대한 관점과 그의 영화가 어떻게 영화미학적 차원에서 세계 영화미학의 한 조류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함. 이운중은 <피막>, <씨받이>, <뽕> 등 한국의 전통을 주제로, 해외 영화제에 출품된 당시의 한국영화들과 달리, 현대영화로 1980년대 흥행을 이끌었던 배창호 감독을 분석함. 그 가운데 이운중은 배창호의 영화 <적도의 꽃>, <깊고 푸른 밤> 등이 어떻게 세계영화사와 미학을 자신의 영화 속에 기입했는지를 살펴봄. 마지막으로 이설은 1980년대 민중미술이 뉴욕과 도쿄 등에서 소개되는 가운데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가운데서 민중미술이라는 개념을 세계 속에서 형성시켜나갔는지를 분석하였음.

	
발표자인 크리스티나 클라인 교수	발표자인 이설 교수

3. 전후 한국영화에서 “민족적인 것”을 다시 사고하기

- 발표: 김희운(Univ. of California), 김소혜(Univ. of Chicago), 이상준(Nanyang Technological Univ.)
- 이 패널은 전후 한국영화(계)에서 “민족적인 것”이 형성되고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을 논의함. 김희운은 1974년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이 박정희 정권의 문화 홍보정책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서로 다른 요구와 목적을 가진 영화애호가(씨네필), 국가, 영화인들이 설립 과정과 담론에 개입했음을 보여줌. 또한 이러한 담론 지형이 당대 한국영화, 시민성,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의 격전장이었다고 주장함. 김소혜는 장률 감독의 2015년 작 <필름 시대의 사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족인 장률 감독이 2012년 한국에서 영화를 만든 이후 어떻게 한국의 집단적 기억을 자신의 영화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축해내고 있는지를 살펴봄. 마지막으로 이상준은 1952년부터 1975년까지 존속

했던 영화사 신필름의 운영방식, 스타일, 영업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어도 1960년대 중반까지 국가와 영화(사)의 관계가 단순히 억압과 피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주체들이 국가의 정책을 활용하고 그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관계를 구축해갔음을 주장함.

	
발표중인 김희윤 박사	발표중인 이상준 교수, 가장 왼쪽은 토론자로 참여한 킬림비아 대학교의 테오도르 휴즈 교수

4. 기나긴 한국의 1940년대: 전쟁, 해방, 분단, 그리고 식민 조선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
- 발표: 류정희(Univ. of Tokyo), 손이레(Univ. of Michigan), 조은애(동국대학교), 오세종(Univ. of the Ryukyus)
 - 해방을 중심으로 1940년대를 단절해서 바라보는 기존 역사학의 시각을 수정하여, 1940년대 전체를 일종의 전환기로 바라보고자 하는 패널. 류정희는 일제말기 친일에 가담했던 윤치호의 사고관을 그의 일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손이레는 해방 전 친일영화를, 해방 후 항일영화를 연출하였던 최인규의 영화세계, 그 중에서도 <사랑과 맹서>(1945)와 <자유만세>(1946)를 주 대상으로 하여 왜 해방 이전 그가 영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아동들이 해방 이후의 영화에 나타나지 않는지를 질문하고, 그것은 해방 이전의 아이들이 해방 이후에 성장했다고 가정할 경우 자신의 친일적 가치관이 해방 이후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 논증함. 이를 통해 해방을 전후로 한 식민주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주제를 탐구. 조은애는 소설가이자 영화 감독인 김성민을 대상으로, 그가 매체에 따라 다른 언어(일본어와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지식인의 매체에 대한 관점, 사회의식 등을 분석. 마지막으로 오세종은 재일교포 작가인 김석범의 소설을 대상으로, 그

가 제주 4.3항쟁의 희생자들을 그려내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분단과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검토함.

	
발표중인 류정희	발표중인 손이레

- 3월 18일,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국학 연구자들 12명과 석식을 함께 하였음. 캐나다 사이몬 프레이저 대학 교수 진달용(영화 및 커뮤니케이션),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 이상준(영화),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신솔이(사회학, 한류), 토론토대학 방문교수 지하루(서강대학교 교수, 미디어 아트), 도쿄 릿쿄 대학교 교수 이항진(한국영화), 일본 상지대학교 교수 추국희(일본 및 한국 대중문화), UC 데이비스 교수 김규현(일본사, 한국대중문화), Oberlin대학 교수 김진원(디아스포라, 한류), 워싱턴대학교 교수 김웅산(한국영화), USC 박사과정 박진희(한국영화),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박현선(한국영화),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김청강(한국영화 및 문학), 등임. 특히 해외 한국영화 연구자들은 최근 한국영화 연구의 발전에 한국영상자료원의 기여가 매우 크다고 입을 모아 사의를 표하였음. 특히 영상자료원의 열린 아카이브 정책과 영어자막이 수록된 VOD 및 DVD 서비스는 한국어 해독이 어려운 서양 연구자들이 한국영화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것이 일본영화 연구자들과 비교되는 지점이라 말함.
- 최근 1950년대 한형모 감독에 대한 책 출판을 앞두고 있는 보스턴 대학의 Christina Clein 교수를 만나, 영상자료원에 스틸 사진만 남아있는 한형모 감독의 <사랑하는 까닭에>(1959) 시놉시스가 홍콩필름아카이브에 있다는 정보를 받음. 출장자 귀국 후 해당 정보를 해외 수집 담당자(최영진)에게 전달함.



연구자 석식 참석 사진

□ AAS 전시 부스 동향 조사

- AAS는 연례 학술대회 기간 중 도서 전시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북미의 주요 출판사 및 아시아 지역 출판사가 이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음. AAS 도서 전시회는 북미 아시아학 연구 서적을 전시하는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참여 출판사의 아시아학 서적 전시 및 할인 판매, 기관 홍보,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장소로 활용됨.
- 전시회 참여 출판사들은 각 출판사의 출판물(샘플) 및 기관 소개 팸플릿 등을 비치하고 있었으며, 전자도서의 경우에는 전자도서 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

니터 등을 구비하였음. 그 외 부스 방문자에게 기념품 등을 증정하기도 함.

- 전시회는 도서 샘플 전시를 통해 출판물 및 신간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 미주 지역 출판사의 경우 현장에서 도서 할인 판매(20~30% 할인) 등을 진행하기도 하나, 미주 이외의 출판사는 샘플 도서만을 전시하고 특정 도서를 요청하는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향후 요청 도서를 배송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 관련 기관들은 자신의 국제사업을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공하기도 함.
- 일본/중국 등의 출판사의 전시 부스가 운집해 있는 것에 비해, 한국 측 참여 출판사의 부스는 분산되어 있었음. 이는 전시회 관람자가 지역별 출판물, 특히 한국 지역 출판물을 일목요연하게 살피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올해 AAS 도서 전시 부스에는 하바드 대학 출판부(Harvard Univ. Press), 루트리지(Routledge) 등 영미권 주요 출판사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출판사 등이 참여하였음. 한국 출판사 혹은 기관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집문당, 경인문화사, 서울셀렉션 등이 참여한.
- 한국영상자료원의 부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하우를 문의해보았음.
 - 부스는 3월 17일은 8시 30분~17시 30분, 18일은 9시에서 18시, 19일에는 9시에서 12시까지 3일간 운영. 부스의 기본 크기(8 feet X 10 feet)는 유형에 따라 다르나 사용료는 1,000달러 내외임. 여기에는 테이블 1개, 의자 2개가 기본으로 제공됨. 추가되는 의자, 테이블 기타 가구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 전시물품을 배송할 경우 수령 및 보관 서비스가 있음(별도 비용).
 - 신청은 행사의 대략 6개월 전부터 진행.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함.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출판실에서 2명이 출장.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집문당, 해외 판매대행사인 공앤박 세 곳은 두 개의 부스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한국 부스를 가능한 통합하거나 인접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기관과 업체간의 일정 조정이 잘 되지 않아 세 곳만 통합운영하였다고 함.
 - 모든 한국 기관 및 업체는 도서를 판매하지는 않고 전시하며, 구입 루트를 알려주고 있었음. 한국문학번역원의 경우 가지고 온 도서는 인근 문화원이나 대학에 기증하고 돌아간다고 함.
 - 2018년 영상자료원의 부스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연구자 및 기관 직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도서 위주의 부스에서 DVD나 블루레이를 전시한다면 매우 신선할 것이라고 함. 여기에 더해 우리 자료원의 Youtube 및 VOD 서비스를 소개할 필요도 있을 것임.

도서전시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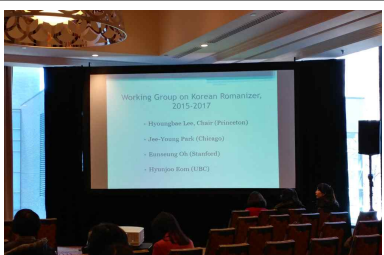
□ 북미 대학 한국학 사서 만찬(3.15) 및 워크숍 참석(3.16)

- AAS 연례 학술대회 일정과 맞물려 매년 북미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이하 CEAL)의 연례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북미 한국학 사서들의 모임 역시 진행됨. 3월 15일에는 한국학 사서 및 관련 기관(한국학중앙연구원, 국회도서관), 업계 관계자들(판문, 경인, 서울셀렉션, 집문당, 공앤박 등) 약 40명이 참석한 만찬이 개최되었음. 한국학 사서들로는 하버드대학교, 듀크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하와이대학교, U.C. 버클리, 시카고대학교, USC, 미시간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밴쿠버대학교, 토론토대학교, 워싱턴주립대학교 등 북미 주요 한국학 관련 대학 사서들이 참석하였음.



사서 모임 석식 장면

- 3월 16일 11시 30분~12시 30분까지는 워크숍이 개최되었음. 이 자리에서는 프린스턴대학교의 이형배 사서가 한글의 로마나이제이션 프로그램 개발 사례, 시카고대학교의 박지영 사서가 일제강점기 엽서 8000종의 메타데이터 구축 사례 등을 발표함.

	
한국학 사서 워크숍 전경	한국학 사서 회장인 듀크대학교 구미리 사서(우편이 프린스턴대 이형배 사서, 시카고대 박지영 사서)
	
이형배 사서의 프리젠테이션 화면	박지영 사서의 프리젠테이션 화면

○ 이하는 한국학 사서들과의 논의 및 요청 사항임.

- 한국영상자료원의 유튜브 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사서들도 있었지만, 모르고 있다 이번 출장자의 발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서들도 있었음. 이들 사서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유튜브 서비스가 한국학의 증진과 수업 교재로서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의를 표함.
- 현재 자료원의 VOD 서비스가 1 도서관내 1개 PC만 허용되고 있어 자료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음. KMDB를 통한 VOD 열람은 대체로 수업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도서관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수업 자료 활용에의 불편하다는 것임. 귀국 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올 초에 아이디 부여 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되어 사서들의 불만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 이 내용을 한국학 사서 모임에 전달 예정.
- 테드 코넬트 자료를 영상자료원에 기증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신희숙 사서로부터 테드 코넬트에 대한 문헌자료를 별도 보유하고 있는데, 영상자료원이 같은 자료

를 다른 통로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받음. 만약 컬럼비아 대학교의 문헌자료를 자료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사진자료와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디지털화하여 공유할 것을 제안받음(이후 출장자 귀국 후 수집부의 최영진 해외수집 담당자에게 동 내용을 전달하였음. 현재 검토 중임). 나아가 신희숙 사서는 향후 테드 코넬트 컬렉션에 대한 역사적 가치 소개와 컬렉션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진행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어옴. 차후 검토하기로 하였음.

- 그 외 독립영화에 대한 해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 사서의 불만이 있었음. 이에 대해서는 출장자 귀국 후 서울독립영화제 김동현 집행위원장에게 동 내용을 전달하였음. 추후 영화진흥위원회와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AAS의 부스 설치와 관련해서는 도서 중심의 전시장에서 DVD를 포함한 영상자료를 소개할 경우 효과가 클 것 같다는 의견들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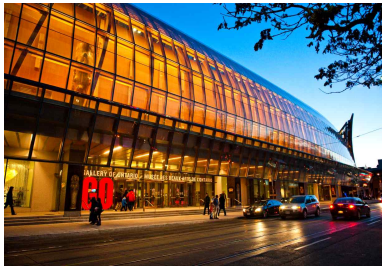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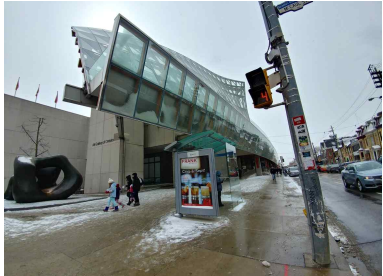
□ 박물관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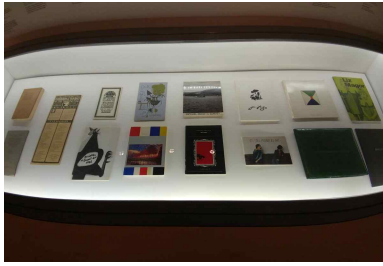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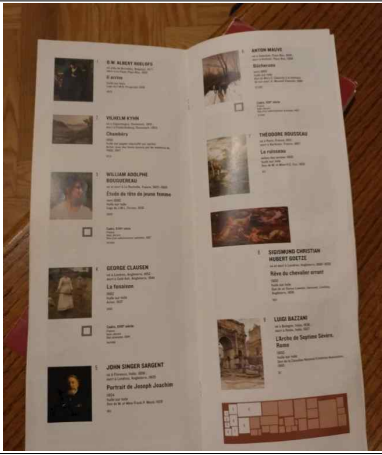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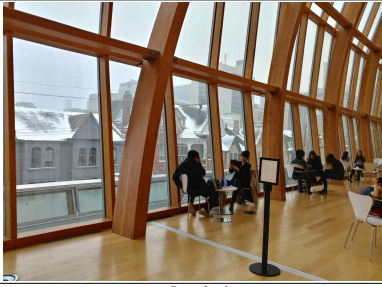
○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Art Gallery of Ont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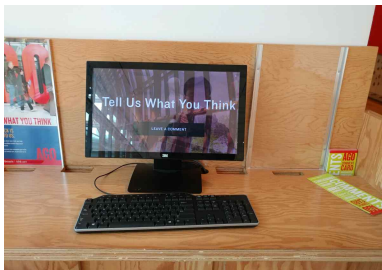
-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AGO)는 1900년 온타리오 예술가 협회라는 민간단체에 의해 설립된 북미에서 유서깊은 미술관 중 하나임. 특히 그 규모는 45,000평방미터로 북미 미술관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음. 소장품은 1세기에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80,000점에 이름.
- 건물은 5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1층에는 정문, 회원 라운지, 현대예술, 유럽예술, 사진, 회화, 기획전시실 등이 2층에는 아프리카, 캐나다, 이탈리아, 헨리 무어 조각전시실, 기획전시실 등이 3층에는 리셉션, 결혼식 등의 행사를 위한 Ballie Court, 4층과 5층은 현대 예술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음.
- 북미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한 세계 명문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비하면 손색이 있는 편이었음.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주의, 인상주의, 모더니즘 등의 유럽 예술사를 생각하면 개별 시기 내 미술품의 수는 많았으나 출장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유명하거나 알 만한 작품들의 수는 많지 않았음.
- AGO는 특이하게도 벽면에 미술품을 몰아 가득 채우는 방식의 전시를 하고 있었음. 이는 최근 유행하는 방식은 아니나, 작품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디스플레이를 강조함으로써 관객에게 박물관 전시의 양감과 압도감을 선사하는 기법으로는 인상적이었음.

- 개인적으로 AGO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소장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목조 선박을 흉내낸 듯한 건물의 구조와 내장, 유럽의 고저택의 응접실을 본 뜬 듯한 카페, 그리고 뉴욕의 MoMA에는 미치지 못하나 비교적 규모가 크고 다양한 상품을 갖춘 아트숍 등이었음.
- AGO는 3월간 March Break: Gallery in a Box라는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이었음. 이 프로그램은 Box를 주제로 박스 속에서 길찾기, 박스 만들어보기 등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였음. AGO 뿐만 아니라 토론토의 박물관 및 문화관련 시설은 가족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풍부했다는 인상임.

AGO 사진

	
외관(전면 사진이 없어 인터넷에서 빌려옴)	입구
	
March Break: Gallery in a Box 외부 체험공간	Anthony Caro의 조각을 전시한 "Sculpture Laid Bare" 전시관

	
Time Capsules: 100 Years of AGO Catalogues AGO에서 진행된 100년 전시의 주요 카탈로그를 모아놓은 공간	전시해설 모습
	
19세기 회화를 밀도있게 배치한 전시관 내부	작품이 뽁뽁하게 전시되다보니 캡션을 별도로 두지 않고 리플렛을 통해 포함
	
모형배 전시관	3층 카페

	
Gallery in a box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체험프로그램(박스 만들기)	근접촬영: Gallery in a box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체험프로그램(박스 만들기)
	
관람 후 소감을 남기는 컴퓨터	관람 후 소감을 그림 혹은 글씨로 표현하여 전시하도록 하였음.
	
17-18세기 중상층의 가정 내부처럼 꾸며놓은 레스토랑 겸 카페	아트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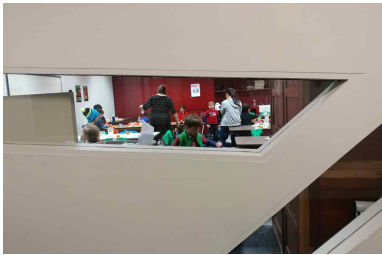
○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Royal Ontario Museum: R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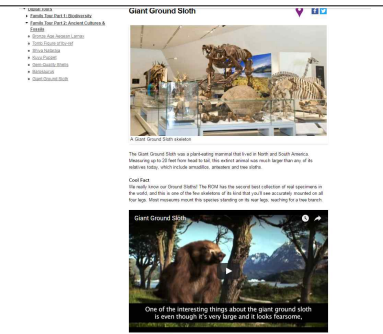
- 로얄 온타리오박물관(이하 ROM)은 1857년 자연사박물관으로 처음 시작하여, 1912년에 오늘날과 같은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함. 2002년, 약 50개의 결선안 중에서 선정된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안에 의해 리모델링에 들어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2005년에 갤러리를 2007년에 최종 구조물을 개관함. 이 리모델링에 최종적으로 투입된 예산은 2억7천만 캐나다 달러였다고 함.
- 박물관의 성격은 자연사박물관과 문화박물관을 섞은 것으로 보임. 미국으로 비교하자면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컨셉을 혼합한 느낌임.
- 대표적인 갤러리를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음. Gallery of Chinese Architecture, Patricia Harris Gallery of Textiles & Costume, James and Louise Temerty Galleries of the Age of Dinosaurs, Galleries of Africa: Egypt, Life in Crisis: Schad Gallery of Biodiversity, Reed Gallery of the Age of Mammals, Prince Takamado Gallery of Japan 등. 출장자가 방문했던 때에는 Out of the Depths: The Blue Whale Story, The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등의 특별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음(요금은 별도 지불).
-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모든 날 오픈을 하며, 운영시간은 10시~17시30분까지임. 다만 2월~4월 사이 수요일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 오픈함. 전체 규모는 7만4천 평방미터, 40개의 갤러리, 아프리카 미술, 아시아 미술, 유럽과 캐나다의 역사, 자연과학과 관련된 6백만점의 유물을 소장.
- 1층의 중국조각 갤러리에 인접해서, 전근대 유물을 중심으로 한국관, 중국관, 일본관이 운영되고 있었음. 그러나 한국관의 경우 중국관과 일본관에 비해 유물의 수와 다양성 면에서 턱없이 모자라 초라한 느낌이 들었음. 이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느낌을 받은 바 있음.
- 평일 오전, 거의 오픈 시간에 방문했음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음. 봄방학 기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관객들로 보였음. 이는 AGO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교육은 단순히 교육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갤러리 내부에서도 공간을 확보하여 진행되며, 다수의 에듀케이터들이 진행함. 말하자면 전체 박물관이 거대한 교육관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 ROM에서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 투어임. 디지털 투어는 생물학적 다양성과 고대유물 및 화석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음. 각 카테고리에서 흥미로운 유물 혹은 동물에 대한 소개를 큐레이터들이 동영상(Youtube로 연계)으로 진행함. 여력이 된다면 향후 우리 박물관도 개별 유물에 대해 이런 방식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서비스한다면 흥미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음.

ROM 사진

	
전체 건물사진을 찍지 못해 인터넷 이미지로부터 빌려온 사진임.	입구 사진
	
1층 한국관 입구	1층 한국관 내부
	
2층에서 찍은 1층 로비	공룡관

	
체험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	Life in Crisis관 입구
	
현장에서 가족 관객들에 전시와 작업과정에 대해 설명중인 큐레이터	교육실 내부 모습
	
The Evolution of Style관 입구	Gallery of Modern Design 관내
	
Gallery of Modern Design 관내	Out of the Depth 전시장 내부

	
관내 레스토랑 모습	관내 아트숍 모습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전시장 디지털 투어 페이지(ROM 홈페이지의 하위범주임)
Wildlife photographer of the Year 전시장	디지털 투어 페이지(ROM 홈페이지의 하위범주임)

III. 시사점

□ 컨퍼런스 참관에 따른 시사점

- 한국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연구의 경향이 각국별 범위에서 벗어나 트랜스내셔널한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영화, 대중음악, 게임 등 그간 진지한 학문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음. 전년의 경우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류 연구가 많았으나, 금년에는 다소 줄어드는 양태를 보임.
- 유사한 맥락에서 고대사나 중세사 분야보다 근현대사, 심지어 80-90년대 역사까지도 연구와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패널들이 급증하고 있었음. 특히 냉전에 관한 내용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나타나는 신냉전 구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 패널은 중국 관련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 한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보임.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학 연구자의 전언에 따르면 동아시아 3국의 연구 비중은 과거 중5, 일4, 한1의 비중이었으나 최근 중6, 일3, 한1의 비중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함.
- 이러한 분포는 도서전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아시아 출판물을 아우르는 대학 출판부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한 개별 국가 부스의 경우 중국이 가장 많고 일본, 대만, 한국의 순이었으며 여타 지역 국가의 부스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음.
-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아시아연구는 트랜스내셔널, 근현대, 대중문화, 냉전이라는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는 바, 이는 향후 한국 영상자료원의 국제사업 방향, 연구방향, 우수영상물을 포함한 DVD 및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등의 사업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됨.
- 2018년부터는 영상자료원이 도서 전시장 내 부스를 설치하고 DVD, 도서, 유튜브 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리플렛 배포 포함). 2018년에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반응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정부 산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학 사서 워크숍 참석에 따른 시사점

- 한국학 사서 워크숍에 참석하여 사서들과 대화한 결과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호감도와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이는 향후 국제사업의 진행

에 있어 매우 좋은 신호라 생각함.

- 지금까지 우리 자료원의 국제사업은 비교적 소극적이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있었던 바,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됨.
- 또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서비스하는 관계를 벗어나 개별 대학들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협업적 관계로 진척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해외 대학 사서들의 경우 자신들이 기획하여 수집한 후 카탈로깅,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서 역시 존재함. 우리 자료원의 경우에도 수집-카탈로깅-서비스의 단계에서 자신의 기획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특히 수집과 카탈로깅 분야)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 및 업무 환경을 갖추어 줄 필요가 있을 것임.

□ 박물관 견학에 따른 시사점

- AGO, ROM, 비공식적으로 잠깐 방문했던 Tiff: Bell & Light Box(종합 영상센터)의 공통점은 프로그램의 눈높이를 회원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임. 즉, 미술품, 동식물, 박물류, 영화 등 콘텐츠는 다양하고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그들 눈높이에 서 교육하고, 체험하게 하느냐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우리 박물관(나아가 자료원 전체)의 경우에도 특히 아동과 가족 단위의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물적·인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박물관의 방문객 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트숍과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이 박물관의 컨셉에 맞게 상당히 넓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음. 이는 단순히 수익사업의 일환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수요에 기반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의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향후 박물관을 신축하게 된다면, 대민 서비스 시설의 규모와 컨셉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끝.